

기독교대학생의 내재적 종교성향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환상의 매개효과

정민선* 박미하**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대학생의 내재적 종교성향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환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기독교대학생 172명이었으며, 내재적 종교성향척도, 긍정적 환상 척도,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기독교대학생의 내재적 종교성향과 긍정적 환상, 긍정적 환상과 진로준비행동은 서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내재적 종교성향과 진로준비행동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독교대학생의 내재적 종교성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긍정적 환상이 매개하는 구조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내재적 종교성향에서 진로준비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하고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내재적 종교성향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환상의 매개효과는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내재적 종교성향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긍정적 환상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기독교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 환상의 역할과 상담에서의 함의점을 논의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후속연구에 대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심단어 : 기독교대학생, 내재적 종교성향, 긍정적 환상, 진로준비행동, 긍정심리학

• 논문 투고일: 2015년 4월 15일

• 논문 수정일: 2015년 5월 8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5월 14일

*한영신학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www.kci.go.kr

I. 여는 글

대학생의 진로는 졸업 후 바로 취업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도 대졸자의 심각한 취업난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휴학이라는 취업유예로 이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킬포세대라는 신종어가 나올 만큼 개인의 건강한 사회적응을 막는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¹⁾ 이러한 현상들은 대학생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취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지도는 궁극적으로 취업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진로정책감을 확립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변인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필요가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탐색행동은 물론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면접에 대비한 직접적인 준비활동으로 취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변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와 관련된 연구는 진로상담프로그램이 진로의사결정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기독교대학생의 진로상담의 모델과 실천방향, 일의 의미와 진로결정,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비교연구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²⁾ 지금까지 일반 대학생의 진

1) 취업난과 불안정한 일자리,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용 지출 등의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장만, 희망, 꿈을 포기한 청년 세대라는 의미의 신종어를 말한다.

2) 오윤선, “기독교대학생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의사결정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3권(2009): 118-136; 박진희, “나눔의 프락시스에 기초한 기독교대학생 진로상담의 모델과 실천방향”,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0권(2013): 125-153; 안경승, “일의 의미와 진로결정”,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3권(2009): 9-33; 김

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축적된 연구들이 방대한 양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기독교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사실을 반영해 준다. 기독교대학생 또한 일반대학생들과 같이 심각한 취업난과 진로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기독교대학생에 대한 차별화된 진로 및 취업지도를 위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기독교대학생에게 취업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것을 넘어 직업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생애과업이라는 점에서 일반대학생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³⁾ 기독교대학생은 영적인 측면에서 기독교 신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진로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세상에서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현실적인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대학현장에서 기독교대학생과 진로상담을 하다보면 대학이나 학과선택에 있어 소명과 기도의 응답으로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진로준비행동은 하지 않고 확실한 응답을 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일반대학생들은 진로상담에서 취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나 구비해야 할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지만, 기독교대학생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진로와 직업을 원하시는지 뜻을 찾는 데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대학생과 일반대학생 868명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각종 국가고시 응시에 대해 일반대학생은 24.6%가 준비한다고 했지만, 기독교대학생은 17.5%에 불과했으며, 기업체 취직에 대해서도 일반대학생들은 32.3%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기독교대학생은 24.7%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와 진로결정”,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3권(2009): 9-33; 김지인·오제은, “부모화와 자아분화가 진로태도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인 대학생과 비기독교인 대학생 비교연구”, 한국기독교상담 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5권 2호(2014): 59-91.

3) 박진희, “나눔의 프락시스에 기초한 기독교대학생 진로상담의 모델과 실천방향”, 127.

타났다.⁴⁾ 비전이 있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연구자들이 만난 학생들에게 국한된 것인지 경험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비전과 소명이 있는 기독교대학생이 모두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님으로 이들을 차별화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는 매개요인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긍정심리학의 긍정적 환상에 주목하였다.

긍정적 환상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기보다는 자신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 미래에 대해 가능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성을 말한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긍정적 환상을 통해 행복과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생산적인 수행능력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경험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⁵⁾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절대자인 하나님께 자신의 통제권을 넘김으로서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래를 보다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긍정적 환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부정적인 위기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관점에서 상황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기독교대학생의 긍정적 환상은 개인에게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심각한 취업난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기독교대학생에게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는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긍정적 환상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고 긍

4) “기독교대학생, 일반대학생에 비해 생명중시 뚜렷...학복합 868명 설문조사”, 「국민일보」 (2010년 2월 7일); 2015년 4월 8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3383021&code=23111111>.

5) 양난미 · 최윤미 · 이지연, “범죄자와 일반인의 긍정적 착각과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 비교”,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8권 4호(2007): 1278.

정적 왜곡을 통해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독교 종교행위를 하는 외재적 종교성향과 달리 기독교 신앙을 삶에서 실천하는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심리적으로 건강한 기독교대학생에게 긍정적 환상이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는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내재적 종교성향의 기독교인들은 믿음, 회개, 교리, 하나님과의 내면적 만남 등을 중요한 동기로 삼으며, 하나님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미래를 예상하고 통제하려는 긍정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생의 내재적 종교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긍정적 환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경험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긍정적 환상에 대한 매개효과가 검증될 경우 향후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기독교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는데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긍정적 환상이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대학생의 내재적 종교성향, 긍정적 환상,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기독교대학생의 내재적 종교성향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환상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내재적 종교성향

종교성향이란 개인의 종교심을 평가하는 것으로 Allport와 Ross는 중

교를 대하는 주된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으로 구분하였다.⁶⁾ 외재적 종교성향은 종교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개인의 이익, 심리적 지지, 사교활동, 사회적 지위 등을 얻는데 이용하는 것이다. 반면, 내재적 종교성향은 개인의 이익과 상관없이 종교적 신념을 생활화하여 삶과 종교의 조화를 이루는 종교적 태도를 말한다.⁷⁾ 이와 같은 의미에서 기독교인의 내재적 종교성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기반으로 성경과 교리를 삶속에서 실천하는 신앙태도라고 할 수 있다.

종교성향은 그 유형에 따라 정신건강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교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종교를 “이용하는(use)” 외재적 종교성향은 불안 및 우울과 정적 상관관이 있었고, “사는 종교(live)”인 내재적 종교성향은 부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재적 종교성향만이 일관되게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⁸⁾ 국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외재적 종교성향이 내재적 종교성향보다 정서적 무책임, 의존성, 무기력, 완벽한 해결영역에서 비합리적 신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⁹⁾ 기독교인과 카톨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내재적 종교성향은 긍정적 종교적 대처와 정적 상관관이 있었고, 외재적 종교성향은 부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6) G. W. Allport & J. M. Ross,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967): 432-443.

7) 권석만,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2008), 462.

8) 설경옥 · 박지은 · 박신영, “종교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메타분석: 국내 학회지 게재논문(1995-2011)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1권 3호(2012): 633-634.

9) 김재석, “대학생의 내재적-외현적 종교성향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 수준의 차이”,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9권 1호(2008): 23.

10) 박신영 · 이서정 · 현명호, “내재적 종교성향, 종교적 대처 및 감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7권 2호(2012): 454.

볼 때, 내재적 종교성향이 외재적 종교성향보다 심리적으로 더 성숙하고 적응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¹⁾

기독교인의 경우에도 어떤 종교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내재적 종교성향의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시된 성경을 실천하는 삶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외부환경에 통제 당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방식을 통해 외재적 종교성향의 기독교인보다 성숙하고 적응적인 정신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종교성향을 기독교 교리와 성경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는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외재적 종교성향보다 성숙하고 적응적인 정신건강을 가진 기독교대학생으로 정의하고, 긍정적 환상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긍정적 환상

긍정심리학은 비교적 건강한 보통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인간의 긍정적 특성을 연구한다. 그 중 최근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긍정적 환상이다. 전통심리학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기준을 정확한 현실지각능력으로 보았다. 그러나 Taylor와 Brown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자신, 사건통제, 미래에 대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왜곡하여 지각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실증연구들을 통해서도 건강한 사람들의 긍정적 환상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위협적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편향하여 지각함으로써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

11) Allport & Ross,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432-443; A. E. Bergin, "Values and Religious Issues in Psychotherapy and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6(1991): 394-403.

다.¹²⁾ 즉,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해서 인식함으로써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긍정심리학은 이러한 긍정왜곡성향을 ‘**긍정적 환상**’이라고 정의하고, 인간의 긍정성을 반영하는 건강한 사람들의 강점으로 제시하였다. 긍정적 환상은 자신, 사건통제, 미래에 대해 정확한 현실지각을 하기 보다는 가능한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전반적인 경향성을 의미한다.

긍정적 환상은 자기고양 편향, 과장된 통제감, 비현실적 낙관주의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고양편향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것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자기고양 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개인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¹³⁾ 과장된 통제감은 자신에게 발생하는 긍정 또는 부정의 사건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제보다 더 크게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¹⁴⁾ 과장된 통제감은 실제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기보다는 같은 사건이라도 자신이 더 많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¹⁵⁾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삶에 대한 통제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Rothbaum, Weisz와 Snyder는 기독교인의 통제감을 이차적 통제감이라고 하였다. 기독교인은 자신보다 강한 절대

12) S. E. Taylor & J. D. Brown,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1988): 193-210.

13) S. E. Taylor, J. S. Lemer, D. K. Sheman, R. M. Sage, & N. K. McDowell, "Portrait of the Self-Enhancer: Well Adjusted and Well Liked or Maladjusted and Friendl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2003): 165-176.

14) S. C. Thompson, W. Armstrong & C. Thomas, "Illusions of Control, Underestimations, and Accuracy: A Control Heuristic Expla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6(1998): 59-71.

15) Taylor & Brown, "Illusion and Well-Being," 193-210.

적 존재인 하나님에게 의식적으로 자신의 통제권을 넘김으로서 더 강력한 존재의 보호아래 있다는 안정감으로 안정감을 누린다는 것이다.¹⁶⁾ 이로 볼 때, 기독교대학생은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는 자신을 의식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 환상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자신의 미래를 바라볼 때 긍정사건이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많고, 부정사건은 더 적을 것이라고 믿는 것을 말한다.¹⁷⁾ 즉,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이 더 긍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하고 미래목표와 수행동기를 촉진시켜 생산적인 일을 하도록 해준다.¹⁸⁾

지금까지 살펴본 긍정적 환상의 개념들을 종합해 볼 때, 긍정적 환상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현실지각을 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과 사건 통제, 미래를 가능한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기독교대학생의 긍정적 환상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사건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아래 미래를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동차원으로

16) F. Rothbaum, J. R. Weisz & S. S. Snyder, "Changing the World and Changing the Self: A Two-Process Model of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1982): 5-27.

17) N. D. Weinstein, "Unrealistic Optimism about Future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1980): 806-820.

18) 고재홍 · 조기영, "청소년의 긍정적 착각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청소년상담학회, 「청소년 상담연구」 제11 권 1호(2003): 167-168.

실제 준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진로준비행동의 구체적인 행동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자기를 이해하고 진로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탐색 행동이다. 자신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격 및 진로와 관련된 심리검사를 받거나, 지도교수와의 상담,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실제 취업에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는 준비행동이다. 자신의 진로목표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준비하고 취업면접에 대비해 연습을 하는 것이다.¹⁹⁾ 이와 같이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와 관련된 개인의 심리적, 인지적, 태도적인 특성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즉, 진로준비행동은 대학생 진로지도의 궁극적 목적인 취업으로 연결되는 직접적인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대학생에게 진로준비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설정한 진로목표를 성취하는데 요구되는 실제 취업에 필요한 도구를 구비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준비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대학생의 진로는 성경을 직업에서 실천하는 삶이라는 점에서 대학에 재학하는 기간 동안 보다 더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이 요구된다.

4) 내재적 종교성향, 긍정적 환상,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긍정심리학에서는 긍정적 환상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본다. 이에 국내에서 범범죄자와 일반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긍정적 환상이 정신건강의 개념으로 타당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교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일반인과 일반

19) 김봉환 · 김계현,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 9권 1호(1997): 311-333.

청소년이 범죄자와 비행청소년보다 긍정적 환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⁰⁾ 외국 연구에서도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과 달리 우울과 같이 심리적으로 부적응한 사람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¹⁾ 위의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기독교대학생을 정신적으로 건강한 기독교인으로 보고, 긍정적 환상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긍정적 환상의 하위영역인 자기고양편향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고양편향은 학업에서 높은 성취도를 나타내고,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과업수행을 강화시켜주며 문제해결능력과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주어 개인의 행동수준을 높여준다.²²⁾ 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불안이 높고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느낄수록 진로탐색행동을 수행하려 하지 않았다.²³⁾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환상은 기독교대학생들로 하여금 진로목표달성을 위한 과업활동을 강화시켜주고, 행동수준을 높여 적극적인 진로준비

20) 양남미·최윤미·이지연, “범죄자와 일반인의 긍정적 착각과 부정적 기본조절 기대치 비교”, 1285-1286; 김혜영,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기분위적 긍정적 착각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비교”(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001): 30-31.

21) L. Y. Abramson & L. B. Alloy, “Depression, Non-Depression, and Cognitive Illusion: A Reply to Schwartz,”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10(1981): 436-447; Taylor & Brown, “Illusion and Well-Being,” 193-210; J. S. Shrauger & M. L. Terbovic, “Self-Evaluation and Assessments of Performance by Self and Oth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1976): 564-572.

22) 홍예순·조규판,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학교행복감, 긍정적 착각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교육학회, 『아동교육』 21 권4호(2012): 90; 김진경, “초등학생의 긍정적 착각과 학교 행복감의 관계”(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대학원, 2010), 18; A. M. Isen, T. Shalcker & L. Karp, “Affect, Accessibility of Material in Memory, and Behavior: A Cognition Loo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1978):1-12.

23) 최동선,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2003), 108.

행동을 수행하도록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생활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인식만을 정확히 하고 있다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는 도전하거나 수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타인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환상은 개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수행에 대한 도전을 주고 성취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울 것이다.

과잉통제감은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을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 환상을 말한다. Peterson은 개인적 통제감을 긍정적인 결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통제감은 정서, 동기, 행동의 활력을 증가시켜 역량을 강화, 대처행동 등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²⁴⁾ 즉, 개인이 통제감을 크게 지각할수록 자신에 대한 유능감을 고취시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한다는 것이다. Ryff도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심리적으로 잘 기능하는 건강한 사람의 지표로 보고, 통제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적 조건을 활용하여 자신의 필요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²⁵⁾ 반면, 우울한 사람은 개인의 통제력을 현실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 이는 정상인의 경우 자신의 환경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보다 환경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긍정적 신념만으로도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고, 수행을 촉진하는데 더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생이 자신이 사건을 잘 통제할 수 있다고 긍정적 환상을 할수록 진로목표

24) C. Peterson, "Personal Control and Well-Being," in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eds.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99), 288-301.

25) C. D. Ryff,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1989): 1069-1081.

26) Taylor & Brown, "Illusion and Well-Being," 193-210.

성취를 위해 긍정적 결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진로준비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적 조건을 활용하여 진로목표를 성취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한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환상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낙관성은 원래 자기이행적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를 낙관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성공적인 성과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⁷⁾ 즉, 미래의 목표성취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고 그 만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희망은 미래의 목표달성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의미하는데 희망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에 대한 효능감이 높고 직업획득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진로목표추구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⁸⁾ 이로 볼 때,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환상을 할수록 진로준비를 위한 행동을 더 잘 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결과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기반으로 성경과 교리를 삶속에서 실천하는 신앙태도를 가진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기독교대학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 사건통제, 미래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것이다. 즉, 내재적 종교성향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다는 믿음, 어려움이 발생해도 잘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긍정적 환상이 동기를 부여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진로목표달성을 위한 진로수행을 더 촉진할

27) 권석만,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332.

28) 김선중,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대학원, 2005), 68; 이정애,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 및 직업획득가능성이 진로목표 추구활동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대학원, 2009), 62-63.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대학생의 내재적 종교성향과 긍정적 환상,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구조모형을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기독교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독교 관련 학과 교수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실시 방법 등을 설명한 뒤 실시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8부를 제외한 총 17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82명(47.7%), 여학생이 90명(52.3%)이었고,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18명(10.5%), 2학년이 51명(29.7%), 3학년이 36명(20.9%), 4학년이 67명(39%)이었다. 이들의 신앙생활의 기간은 10년 이상이 134명(77.9%), 10년 이하가 38명(22.1%)이었다.

2) 측정도구

(1) 내재적 종교성향 척도

내재적 종교성향 척도는 Allport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석봉과 이성배가 개발한 한국판 종교성향 척도를 사용하였다.²⁹⁾ 이 척도는 본래 총 26 문항으로 외재적 종교성향 13문항과 내재적 종교성향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종교성향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종교적 믿음과 신앙을 내면화하고 삶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짐

29) 제석봉·이성배, “종교성향검사(ROS)의 개발과 종교적 성향이 적응 및 종교적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11 권(1995): 245-280.

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내적합치도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2) 긍정적 환상 척도

긍정적 환상 척도는 김혜영이 사용한 긍정적 환상 척도(Positive Illusion Questionnaire: PIQ)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³⁰⁾ 이 척도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평가인 자기고양편향, 사건에 대한 과장된 통제감, 미래에 대한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고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고양편향은 응답자들이 자신을 타인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정도를 말하며, 사건에 대한 과장된 통제감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사건에 대해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이 얼마나 통제가능한지에 관한 내용이다.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미래에 대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지각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김혜영의 연구에서 자기고양편향은 내적합치도가 .75, 사건에 대한 과장된 통제감의 내적합치도는 .67, 미래에 대한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의 내적합치도는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자기고양편향 .85, 사건에 대한 과장된 통제감 .85,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74였으며, 전체 신뢰도는 .87이었다.

(3) 진로준비행동 척도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김봉환이 개발한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검사(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를 이명숙이 현실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³¹⁾ 이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명숙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8이었으며, 본 연구

30) 김혜영,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기분위적인 긍정적 착각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비교”, 24-27.

31) 이명숙,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대학원, 2003), 30.

에서는 .92이었다.

3) 연구방법

본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들(내재적 종교성향, 긍정적 환상, 진로준비행동)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 및 왜도를 통해 구조모형 검증의 기본 가정인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측정모형검증을 실시하였고, 셋째, 본 연구에서 가정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적합도 기준은 Anderson과 Gerbing (1988)이 제안한 방식에 따라 진행하였다. 넷째, 내재적 종교성향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긍정적 환상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의 결과 분석

1) 측정변인의 상관관계와 정규성 검토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검증에 앞서 각 측정변인들의 정규성 분포와 이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측정변인들의 왜도는 $-.84 \sim .38$, 첨도는 $-.15 \sim .60$ 의 범위를 나타내 West와 Finch(1997)가 제안한 정규분포의 기준(왜도 절대값 2이상, 첨도 절대값 7이상)에 적절하였으며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재적 종교성향과 긍정적 환상은 과장된 통제감을 제외하고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15 \sim r=.31$, $p<.01$). 내재적 종교성향과 진로준비행동은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긍정적 환상과 진로준비행동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17 \sim r=.29$, $p<.01$).

〈표 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N=172)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내재적종교성향 1											
2. 내재적종교성향 2	.86**										
3. 내재적종교성향합	.96**	.96**									
4. 자기고양면향	.24**	.31**	.29**								
5. 과장된 통제감	.06	.14	.10	.22**							
6. 비현실낙관주의	.16*	.13	.15*	.42**	.19*						
7. 긍정적 환상합	.21**	.30**	.25**	.74**	.71**	.70**					
8. 진로준비행동1	.10	.11	.11	.18*	.24**	.17*	.28**				
9. 진로준비행동2	.01	.02	.02	.19*	.26**	.16*	.29**	.73**			
10. 진로준비행동3	.02	.03	.02	.10	.25**	.07	.21**	.69**	.77**		
11. 진로준비행동합	.04	.05	.05	.17*	.27**	.15	.28**	.89**	.92**	.91**	
M	22.3	21.9	44.2	58.1	57.4	57.4	173.1	19.0	18.5	17.4	54.9
SD	5.71	5.61	10.9	7.68	9.08	6.98	17.05	5.32	5.20	5.27	14.3
왜도	-.83	-.81	-.84	.35	.26	.38	.35	.04	-.17	.10	.18
첨도	.18	.18	.60	-.15	.33	-.07	-.04	.18	.18	.18	.05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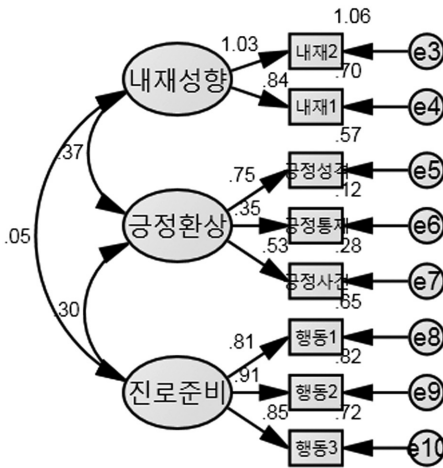
2) 측정모형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하위요인이 없는 내재적 종교성향과 진로준비행동은 각 구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묶은 점수(item parcels)로 구성하여 검증하였다. 측정모형 검증결과 $\chi^2 = 25.04$ (df = 17, p = .094), TLI = .98, CFI = .99, RMSEA = .05로 나타났다. χ^2 값은 모형과 구조적으로 잘 맞을 때 그 값이 작아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되는데, 본 연구의 측정모형 또한 χ^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derson과 Gerbing은 사례수가 250 미만이고 측정변인의 수가 12개에서 30개 사이일 경우, CFI와 TLI가 .95이상, RMSEA가 .08이하인 경우 분석자료와 모형이 합치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는데, 본 연

구의 정성지표도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잠재변인은 측정 변인에 의해 타당하게 측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Model	χ^2	df	TLI	CFI	RMSEA
측정모형	25.04	17	.98	.99	.05



<그림 1. 측정모형>

3. 구조모형 검증

기독교대학생의 내재적 종교성향과 긍정적 환상,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구조를 검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25.04$ ($df = 17, p = .094$), $TLI = .98$, $CFI = .99$, $RMSEA = .05$ 로 나타났다. Anderson 외의 기준에 따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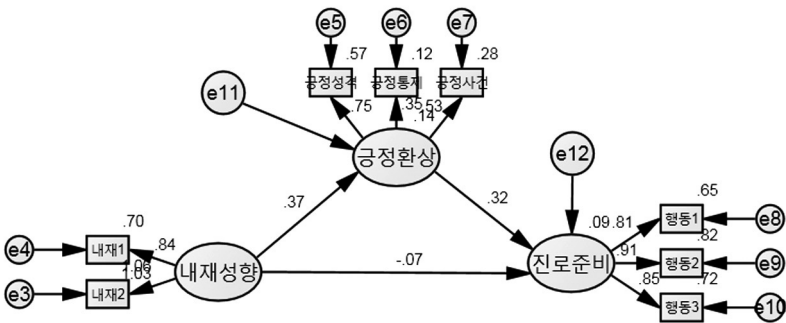
Model	χ^2	df	TLI	CFI	RMSEA
구조모형	25.04	17	.98	.99	.05

내재적 종교성향에서 긍정적 환상의 경로계수는 유의하였고($\beta = .37$, $p < .001$), 긍정적 환상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경로계수도 유의하였다($\beta = .32$, $p < .001$). 이는 기독교대학생의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긍정적 환상이 더 높아지고, 긍정적 환상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내재적 종교성향에서 진로준비행동으로의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모수추정치

변수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
내재적 종교성향 → 긍정적 환상	.37(.37)***	.111	3.349
긍정적 환상 → 진로준비행동	.32(.24)**	.094	2.554
내재적 종교성향 → 진로준비행동	-.07(-.05)	.066	-.805

** $p < .01$ *** $p < .001$



〈그림 2〉 구조모형

4. 매개효과 검증

그림 2의 구조모형에서 내재적 종교성향과 진로준비행동의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내재적 종교성향이 긍정적 환상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내재적 종교성향이 긍정적 환상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038, .288)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재적 종교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없어 기독교대학생의 내재적 종교성향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환상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매개효과 검증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Bias-corrected)	
		하한계	상한계
내재적 종교성향 → 긍정적 환상 → 진로준비행동	.089	.038	.288

주. 95% 신뢰구간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값임.

III. 닫는 글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생의 내재적 종교성향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환상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대학생의 내재적 종교성향과 긍정적 환상,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내재적 종교성향은 긍정적 환상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진로준비행동과는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긍정적 환상과 진로준비행동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환상은 높고, 긍정적 환상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재적 종교성향은 진로준비행동과는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재적 종교성향에 비해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가정한 내재적 종교성향이 긍정적 환상과 관련이 있고, 긍정적 환상이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해 준다. 그러나 내재적 종교성향이 진로준비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는 종교적 태도 자체는 개인의 행동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둘째, 기독교대학생의 내재적 종교성향, 긍정적 환상, 진로준비행동의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내재적 종교성향에서 긍정적 환상의 경로계수와 긍정적 환상에서 진로준비행동의 경로계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내재적 종교성향에서 진로준비행동으로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긍정적 환상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해 준다.³²⁾ 즉, 외재적 종교성향에 비해 내재적 종교성향이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고 적응적이라는 선행연구에 근거해 볼 때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긍정적 환상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³³⁾ 그리고 긍정적 환상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아진다는 결과는 자기고양 편향이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과업수행을 강화시켜 개인의 행동수준을 높여주고, 희망이나 직

32) 양난미 · 최윤미 · 이지연, “범죄자와 일반인의 긍정적 착각과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 비교”, 1285-1286; 김혜영,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기분위적 긍정적 착각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비교”, 30-31.

33) Allport & Ross,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432-443; Bergin, “Values and Religious Issues in Psychotherapy and Mental Health,” 394-403.

업획득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목표추구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선행연구결과들과 맥을 같이한다.³⁴⁾ 그리고 내재적 종교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는 실천적인 삶을 추구하는 종교적 태도 자체만으로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태도와 동기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태도는 특정한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평가로, 행동 반응에 영향을 주는 준비 상태를 의미하지만, 동기는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인 직접요인으로 방향과 강도, 지속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³⁵⁾ 즉, 내재적 종교성향은 신앙적 태도로 기독교 신념에 따라 대상과 상황을 평가하는 것으로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진로준비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긍정적 환상은 동기로 작용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독교대학생의 건강한 신앙태도만으로는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연구자들이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앙이 좋은 것 자체가 행동을 유발하지 못한다. 기독교대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취업과 관련된 구직준비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긍정적 기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기독교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앙에 근거한 다양한 동기 자원을 탐색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34) 김진경, “초등학생의 긍정적 착각과 학교 행복감의 관계”, 18; Isen, Shalcker & Karp, “Affect, Accessibility of Material in Memory, and Behavior: A Cognition Loop?” 1-12; 김선중,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68; 이정애,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 및 직업획득가능성이 진로목표추구활동에 미치는 영향”, 62-63.

35) 네이버 홈페이지 두산백과, 2015년 4월 8일 접속, 해당사이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4004&cid=40942&categoryId=31531>.

셋째, 기독교대학생의 내재적 종교성향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환상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내재적 종교성향에서 진로준비 행동으로의 직접효과는 없었고, 긍정적 환상은 내재적 종교성향과 진로준비행동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긍정적 환상이 높아지고, 긍정적 환상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기독교대학생의 긍정적 환상이 진로준비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입증해 준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생의 진로상담 및 취업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긍정적 환상을 내적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긍정적 환상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 왜곡을 한다는 점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검토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기독교대학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내재적 종교성향의 기독교대학생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 환상을 통해 진로준비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진로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종교성향이 내재적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긍정적 환상을 진로준비행동 증진을 위한 보편적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긍정적 환상이 자존감의 경우 단기적인 위협에 대처할 때는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낮은 학업성취와 중도탈락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³⁶⁾ 이는 긍정적 환상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영역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수행의 노력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 노력 없이 자신에 대해 지속적인 긍정적 환상을 가지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능력을 사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기독교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긍정적 환상을 개입할 경우 환상의 적정경

36) 권석만,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462에서 재인용.

계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³⁷⁾

본 연구는 지금까지 기독교대학생에 대한 진로관련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기독교대학생의 내재적 종교성향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독교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 상담 시 일반인과 다른 기독교인의 특수한 특성을 탐색하고, 그 특성 중 긍정적인 특성을 발견하여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긍정심리학에서 정신건강의 새로운 지표로 제시한 긍정적 환상을 기독교대학생에게 적용하여 검증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매개변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기독교 진로상담의 새로운 내적자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독교대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전체 기독교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긍정적 환상 척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독교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신앙에 근거한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종교성향의 기독교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외재적 종교성향의 대학생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차이가 있는지 실증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긍정적 환상 외에 기독교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공동체 등의 환경변인, 기독교 진로영역에서 중요한 소명 변인 등 다양한 변인을 탐색하고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37) R. F. Baumeister, "The Optimal Margin of Illu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8(1989): 176-189.

【 참고문헌 】

- 고재홍 · 조기영. “청소년의 긍정적 착각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청소년 상담학회. 「청소년 상담연구」 제11권 1호(2003): 166-181.
- 권석만.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2008.
- 김봉환 · 김계현.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 9권 1호(1997): 311-333.
- 김선중.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대학원, 2005.
- 김재석. “대학생의 내재적-외현적 종교성향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 수준의 차이”.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9권 1호(2008): 15-28.
- 김지인 · 오제은. “부모화와 자아분화가 진로태도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인 대학생과 비기독교인 대학생 비교연구”. 한국기독교상담 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5권 2호(2014): 59-91.
- 김진경. “초등학생의 긍정적 착각과 학교 행복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대학원, 2010.
- 김혜영.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기분위적 긍정적 착각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비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001.
- 박신영 · 이서정 · 현명호. “내재적 종교성향, 종교적 대처 및 감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7권 2호(2012): 449-460.
- 박진희. “나눔의 프락시스에 기초한 기독교대학생 진로상담의 모델과 실천방향”.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0권(2013): 125-153.
- 설경옥 · 박지은 · 박선영. “종교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메타분석: 국내 학회지 게재논문(1995-2011)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1권 3호(2012): 617-642.
- 안경승. “일의의미와 진로결정”.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3권(2009): 9-33.
- 양난미 · 최윤미 · 이지연. “범죄자와 일반인의 긍정적 착각과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 비교”.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8권 4호(2007): 1277-1290.

- 오윤선. “기독교대학생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의사결정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3권 (2009): 118-136.
- 이명숙.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분석”.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대학원, 2003.
- 이정애.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 및 직업획득가능성이 진로목표 추구활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대학원, 2009.
- 제석봉 · 이성배. “종교성향검사(ROS)의 개발과 종교적 성향이 적응 및 종교적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제11권(1995): 245-280.
- 최동선.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2003.
- 홍애순 · 조규판.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학교행복감, 긍정적인 착각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교육학회, 「아동교육」 21 권4호 (2012): 81-95.
- Abramson, Lyn Yvonne & Lauren B. Alloy. “Depression, Non-Depression, and Cognitive Illusion: A Reply to Schwartz.”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10(1981): 436-447.
- Allport, Gordon W. & J. Michael Ross.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967): 432-443.
- Anderson, J. C. & D. W. Gerb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no. 3(1988): 411-423.
- Baumeister, Roy F. “The Optimal Margin of Illu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8(1989): 176-189.
- Bergin, Allen E. “Values and Religious Issues in Psychotherapy and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6(1991): 394-403.
- Isen, Alice M., Thomas Shalcker, & Lynn Karp. “Affect, Accessibility of Material in Memory, and Behavior: A Cognition Loo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1978): 1-12.
- Peterson, Christopher. “Personal Control and Well-Being,” In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Eds. D. Kahneman, E.

- Diener & N. Schwarz.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99.
- Rothbaum, Fred., John R. Weisz & Samuel S. Snyder. "Changing the World and Changing the Self: A Two-Process Model of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1982): 5-27.
- Ryff, Carol D.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1989): 1069-1081.
- Shrauger, J Sidney & Melanie L. Terbovic. "Self-Evaluation and Assessments of Performance by Self and Oth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1976): 564-572.
- Taylor, Shelley E. & Jonathon D. Brown.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1988): 193-210.
- Taylor, Shelley E., Jennifer S. Lemer, David K. Sherman, Rebecca M. Sage, & Nina K. McDowell. "Portrait of the Self-Enhancer: Well Adjusted and Well Liked or Maladjusted and Friendl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2003): 165-176.
- Thompson, Suzanne C., Wade Armstrong & Craig Thomas. "Illusions of Control, Underestimations, and Accuracy: A Control Heuristic Expla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6(1998): 59-71.
- Weinstein, Neil D. "Unrealistic Optimism about Future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1980): 806-820.
- 국민일보 홈페이지(<http://news.kmib.co.kr>).
- 네이버 홈페이지 두산백과(<http://terms.naver.com>).

【 Abstract 】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Illusions in the Relation between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in Sun Jung & Mi Ha Bak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illusio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72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were sampled, and their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their positive illusion, and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ere measured. Use SPSS WIN 18.0 and AMOS 18.0. As a result,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their positive illusions, and their positive illusions and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had a positive correlation, but their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had no correlation. Second, the positive illusion mediating structural mode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fit for the data, and all paths except the path from their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to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the positive illusion's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found to be a complete mediator. This suggests that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career behavior promoted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their positive illusions rather than directly influenced their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thus, the role that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positive illusions played in promoting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its implications in counseling were discussed. Lastly, this research'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and follow-up research direc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positive illusion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ositive psychology